

Q. 어떻게 보이십니까?

2005.09.26-28
mon-wed.

the 3rd LESBIAN festival

편견클리닉,

이반과 일반

이화여대 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세번째 문화제

2005.09.26 - 2005.09.28 세 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편견 클리닉, 이반과 일반

"뭐야, 재네 또 문화제 해?"

네, 드디어 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 학기동안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에서 아야무런 움직임도 없는 듯이 보여서 까마득히 잊으셨던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얘들이 드디어 사라졌구나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던 분들도 분명 있었겠지요. 요즘 변태소녀들 뭐 하나, 왜 아무 것도 안하나, '또' 무슨 일이나? 하고 걱정하셨던 분들 ..... 계시겠지요?

아쉽게도, 혹은 기쁘게도 변태소녀들은 학문관 파란 방구석에서 딩굴딩굴 또 살아남았습니다.

이화를 지키던 아름드리 나무들 대신 하늘을 메우는 커다란 기계들이 들어서고, 푹신하던 땅 대신 꽉 막힌 아스팔트 길이 이화를 대신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지난 1학기는 유독 삭막하고 가혹한 학기였습니다. 조금도 신나지도, 기쁘지도 않은 한 학기였습니다. 적막하고 생기 없는 한 학기였습니다. 말들은 모두 침묵의 커다란 괴물에게 우걱우걱 삼켜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처절하게 내리꽂히던, 비수와도 같던 2003년도의 그 말들보다 2005년의 침묵이 더 두렵고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굴할 변태소녀들이던가요, 어디?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중전, 지하전까지 섭렵하고 나니-그것은 정말 戰이었습니다.-(여기서 BGM으로 '친절한 금자씨' 메인테마가 흘러나오며) 붙인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떨어지는 자보를 부여잡고 눈물 글썽이는 대신 씨익- 하고 뜻 모를 미소를 문화관 2층 층계에 남겨두며 방에 들어가 자보 2/10을 들고나와 붙일정도로 단단해져 버렸습니다. 차마 날아볼 수도 없게 묵직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난 어쩌다 이성애자가 되었니?" 하고 (소심하게) 묻고, 그리고 "하지만, 난 레즈비언인 걸!" 하고 발랄하게 외치는 것에 이어서 **올해는 대담하게도 '편견 클리닉'을 열고자 합니다.**

Q. 클리닉이 뭔가요?
A. (네이버 검색 창에 '클리닉'만 쳐봐)

친절한 변태소녀들이 네이버에 검색하는 수고를 덜어드리자면 클리닉은 '질환이나 심리적 장애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진단, 치료하는 시설' 이라고 정의되어 있더군요.

변날의 ㄴ자만 들어도 괴로우신 분, 화연 비연의 페즈pass글을 굳이 클릭해서 까칠한 리플을 다시는 행, 변날 자보를 보면 절로 손이 가시는 분들부터, 이대에 변날애들 말고는 페즈비언들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천진난만한 분까지 모두 편견 클리닉에 한 번 참여해보세요.

아, 혹시 동성애자에게 바코드라도 장착해서 관리해야 한다던가, 변날방에 무단 침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던가, 혹은 학내 페즈비언들을 색출하기 위해 서울의 모처처럼 곳곳에 CCTV를 달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머리에 개념이라고는 기초공사도 안된 분이 있으신가요?

(길게 한숨) 하지만 변태소녀들이 여는 편견 클리닉은 이런 분들도 절대 배척하지 않으니 꼭 참가하도록 하세요.



당신들의 편견이 치유되길 바라며,

그리고 빠른 쾌유를 빌며.

퀸즈 클리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클리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을 열며
"엄마, 재네 또 문화제래?" 3

pre 클리닉
기본도 안되신 분, 부끄러워 마세요. 9
기본만 되신 분도 괜찮아요. 11

클리닉 1차시
무식이 사람잡네 13
단 한번도 女와 something이 없었던 여느 女의 끄적거림
: 그래도 난 lesbian인데요? 16
엄마에게 쓰는 편지 18
우리도 사랑을 한다 20

클리닉 2차시
기독교와 동성애 24
[성명서] 27
MBC 뉴스투데이 〈웃음속으로〉 29
〈아빠검열〉 속 그 아이
: 학교라는 공간에서 멈춰있던 시간 33
[만화] 위험한 35

클리닉 3차시
우리의 특별한 집들이 38
L porno를 보는 여자 40
[대담] 퀸즈! 이건 아니에요. 46
나의 공포는 핏빛이 아니다. 51

단체 및 커뮤니티 소개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퀘즈비언권비언고소
한국퀘즈비언 상담소
이화여대 여성이반 친목 커뮤니티 조이토마토

후기

pre 클리닉

"음, 저기 전 귀하게 자라서, 아무 것도 몰라요.
레즈비언? 그게 뭐죠?"

아무것도 모르는 건, 자랑이 아니랍니다.
본격적인 클리닉에 앞서.

기본도 안되신 분, 부끄러워 마세요.

- 이제부터 알면 되는거죠

동성애(Homosexuality), 동성애자(Gay)

동성애는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으로 동성에게 이끌리는 것을 뜻합니다. 동성애자는 이렇게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으로 덩성에게 이끌림을 느끼는 사람 중에, 그러한 자신의 지향을 받아들여 스스로를 동성애자로서 정체화한 사람을 말하지요. 따라서 동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거나 동성과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동성애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타인이 한 개인에게 동성애자로 정체화할 것을 강요할 수도 없고요.

한편 우리는 주위에서 '동성연애(same-sex act)' 혹은 '동성연애자(호모,Homo)'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는 동성간의 성관계, 성행위에만 초점을 맞춘 단어입니다. 동성애는 행위(doing)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being)인데 말이지요. 따라서 동성연애나 동성연애자라는 말은 지양해야 합니다.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라는 단어는 원래 남녀 동성애자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대부분 남성 동성애자에 국한되어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여성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레즈비언입니다. 즉 레즈비언은 같은 여성에게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인 이끌림을 갖고 자신을 여성 동성애자로 정체화한 사람을 뜻합니다. 여성에 대한 사랑을 노래했던, 고대 그리스의 4대 시인 중의 한 명인 여류시인 사포가 살았던 섬 레스보스에서 기원한 말입니다.

양성애자(Bi-sexual)

양성애자는 동성과 이성 모두에게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퀴어(Queer)

퀴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묘한, 이상한, 괴상한"입니다. 처음에는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던 이 말은, 8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동성애 인권운동가들에 의해 적극적, 긍정적으로 수용된 단어이지요. 퀴어는 동성애자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LGBT) 등 모든 성 소수자를 포괄하는 용어로 발전했습니다.

이반(iban, 二般, 異般)

이반이라는 용어는 종로의 게이 커뮤니티에서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처음에는 이성애자를 의미하는 일반(一般)에 반하는 이반(二般)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다가 이후, 이성애자와 다르다는 이반(異般)의 의미로 발전하였습니다.

성 정체성(Sexual Identity)

성 정체성이란 자신이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으로 어떤 성에게 이끌리는지의 측면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한 개인이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인 관심을 의식하고 자각하여 자신을 규정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커밍아웃(Coming Out)

커밍아웃은 '벽장 속에서 나오다(Come out of closet)'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말로, 성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드러내는 과정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커밍아웃은 성 소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긍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특히 타인에게 하는 커밍아웃은 자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 주지만, 성 소수자에게 있어서 매우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아웃팅(Outing)

아웃팅은 성 소수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 성 정체성이 폭로되는 것을 뜻합니다. 아웃팅은 성 소수자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삶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으므로 성 소수자에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아웃팅은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지요.

동성애 공포증, 동성애 혐오증(Homophobia)

동성애 공포증 혹은 혐오증은 동성애(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지식 없이 동성애(자)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 무조건적인 거부감, 혐오 등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동성애 공포증은 동성애 혐오범죄를 만들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로 정체화하는 데 괴로움을 겪도록 합니다. 특히 이성애 중심주의적 사회에서 동성애 공포증은 동성애자에게도 내재화되고, 실제 많은 동성애자들이 이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기본만 되신 분도 괜찮아요.

- 당신에겐 아직 가능성이 있답니다.

이성애자들에게 궁금한 것

당신들은 왜 이성애자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 이성애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까?
이성애라는 것은 누구나 성장 과정에서 한번쯤 거치는 단계가 아닙니까?
당신의 이성애는 동성에 대한 신경증적인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동성애 경험없이 어떻게 이성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성애자들은 동성애자를 유혹해서 이성애자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성애자를 동성애자로 바꿀 수 있는 치료법이 나왔는데 치료를 받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성애를 인정하지만,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청소년을 '음란의 바다'로 내모는 꼴이 아닙니까?
요즘 이성애가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애자들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이성을 보면 다 끌리나요?
당신은 이성과의 우정을 사랑과 혼돈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성애자들이 좋아하는 색깔은 뭔가요?
이성애자들은 데이트를 하면 무엇을 하고 노나요?

위와 같은 질문을 받아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성애자 대신 동성애자를, 동성애자 대신 이성애자를 위의 질문에 넣어보세요.

혹시, 당신도 이런 질문을 던져본/던지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요?

클리닉 1차시

"뭐라고? 레..뷔?
그거 변태들이잖아."



'레즈비언'이란 단어를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하는
그런 당신들을 위한 알약 한응큼.

당신의 편견을 치료할 알약

무식이 사람 잡네

by 몸

"더러운 년.."

화장실 바닥에 널부러진 나를 대걸레로 패던 그 애가 처음으로 내던진 말이었다. 2년 동안 좋아했었던 그 애에게 고백하는 순간 일어난 일이었다.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날 화장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축축하게 젖어있던 대걸레로 내 복부를 절구 찧듯이 내려쳤다. 난 최대한 덜 맞기 위해 몸을 구부린 채로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표정을 보진 못했다. 하지만 분명 증오스럽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날 쳐다보고 있었을 것이다. 몇 대를 맞았는지 모를 만큼 한참 지났을 때 화가 좀 풀린 건지, 아니면 팔 힘이 떨어진 건지 대걸레를 내 쪽으로 휙 집어던지더니 화장실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난 다른 애들이 들어올까 겁이 나서 벽에 몸을 기대고 천천히 일어나려 했으나 다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했는지 조차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머리가 멍해진 상태로 30분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30분이 지나자 화장실의 구린 냄새와 화장실의 차가운 바닥이 느껴졌다. 겨우 몸을 일으켜 교실로 걸어갔다. 무조건 집으로 먼저 가야겠다는 생각에 그 애의 존재를 확인할 틈도 없이 가방을 챙겨 학교 밖으로 뛰쳐나갔다. 가장 먼저 도착한 버스에 올라탔다. 자리에 앉자마자 힘없이 고개를 푹 숙였다. 축축하게 젖은 교복에서 걸레냄새가 났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내 방으로 들어가 교복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몸에 배인 걸레냄새를 지우기 위해, 오랜 시간 가슴앓이를 하게 했던 그 애에게 받은 상처를 달래기 위해, 이불로 몸을 문지르며 그렇게 밤새 울었다.

그날 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느꼈던 비참함은 3년이 지난 지금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다. 그 덕분에 요즘에도 난 가끔 화장실 칸막이에 갇혀 천장에서 떨어지는 걸레들을 아무런 저항 없이 맞고 있는 악몽을 꾸기도 한다.

며칠 후, 우리는 복도에서 마주쳤고 조용한 곳으로 갔다. 그 아이는 자신이 했던 짓을 후회하며 나에게 그런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변명은 이러했다.

- **"난 니가 나한테 무슨 병이라도 옮겼을 줄 알았어."**

2년 동안 혹시나 들킬까 싶어 동성애에 관련된 얘기를 전혀 안 꺼냈던 것이 나에게 이렇게 큰 충격이 되어 돌아올 줄 몰랐다. 그 애가 가진 동성애에 관한 지식이, 아니 상식이 그렇게 무지하고 잘못되어 있을 수가 없었다. 동성애자가 마치 손잡만 닿아도 전염되는 바이러스인 줄 알았다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때 난 정말 어이가 없었다. 왜 나를 걸레로 그렇게 때렸는지 알 것 같았다. 순간 내가 걸레로 때려 죽여도 되는 벌레 같아 보였겠지..

- **"니가 더럽고 징그러워 보였어."**

여자를 좋아하는 게 뭐가 그리 큰 잘못이라고 벌레와 동급으로 취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자 레즈비언 간의 성관계를 들먹거렸다. 너도 여자들이랑 자봤냐고, 너도 '동물처럼' 섹스 하냐고.. 하지만 그 당시 난 레즈비언 섹스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 **"너도 날 보면서 그런 더러운 관계를 생각했겠지. 모욕적이야."**

넌 나를 친구가 아니라 성적대상으로 봤을 거라며 그래서 자기는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지금 레즈비언임을 알린 나에게 그런 망언들을 퍼붓는 것이 날 모욕하는 것임은 알지 못한 채.. 그 애의 말을 따르자면 동성애자들은 오로지 섹스를 목적으로 만나는 것이며 그들이 하는 것은 사랑도 우정도 아닌 섹스 뿐 이라는 것이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근거 없는 말들을 날 배려도 안한 채 마구 내뱉어 댔다. 대걸레로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감정을 정리하지 못했던 나는 그 애의 어이없는 발언에 실망을 했고 그 후로 조금씩 감정정리를 해나갈 수 있었다.

그 당시 제정신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난 말 한마디 대꾸도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야, 그런 근거 없는 얘기를 어디서 주워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2년 동안 절친한 친구로 지냈던 나한테 그렇게 막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 땐 감히도 알았던 우정은 그렇다 치고 지금부터 네가 말했던 어이없고 썩어빠진 변명들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보자. 뭐? 병이라도 옮길 줄 알았다고? 그럼 너보다 더 오랫동안 나랑 친하게 지낸 ㅅㅅ는 벌써 병원에 실려 갔겠네. 그리고 AIDS는 아무나 걸리나? 성사 걸렸다고 쳐. 내가 너랑 피라도 섞었어? 자기는 남자친구랑만 손잡을 거라며 손 한번 제대로 못 잡게 해놓고 무슨 병을 옮겨. 그리고 동성애자면 다 AIDS걸린 것처럼 말하던데 그게 그렇게 쉽게 걸리는 병이 아니라고. 동성애자들이 퍼뜨리고 다니는 병도 아니고 오히려 이성애자들끼리 섹스하면서 전염 더 많이 되는 거 올라?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너의 무지함으로 날 벌레취급하고 대걸레로 때다니. 너의 그 무식함으로 나중에 사람도 죽이겠다? 그리고 내가 넘 퀴 성적대상으로 보니. 솔직히 너도 네 입으로 그렇게 얘기할잖아. 자기는 통버어다가 등빨도 있고 키도 크고 가슴도 작아서 아무도 자기를 섹시하게 안 느낄 것 같다고. 너도 너 자신을 잘 알면서 어떻게 내가 넘 성적대상으로 봤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니. 그리고 넘 성적대상으로 보는 건 네가 그렇게 좋아라 하는 남자애들이 더 심할걸? 동성애자들은 섹스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성적대상으로 본다는 너의 미친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참 네 머리뚜껑 한 번 열어보고 싶다. 나도 너처럼 누군가를 좋아할 때 설수해지고 가슴앓이도 하고 똑같이 그런다고. 내가 변태야? 그리고 자꾸 동성애자=섹스머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적어도 난, 그리고 내가 아는 동성애자들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 다들 좋아하는 사람이랑 사귀면서 사랑을 키워나가고 사랑하다가 자연스럽게 섹스하고 그래. 넌 지금 그깟 편견 따위로 2년 동안 우리가 친구로서 함께했던 시간과 추억들을 짓밟아버리고 너한테 쏟았던 2년의

시간을 혹독하게 만들었어. 넌 나한테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를 만들어줬어. 그리고 앞으로 그럴 일이 없기를 내가 미친 듯이 기도하겠지만 나중에라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상처 주는 더러운 말들 하지 말고 "미안하지만 난 널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딱 한마디로 깔끔하게 끝내. 그런 말 한마디로도 충분히 알아들으니까. 너한테 좋아한다고 고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수백번, 수천번 생각해봤을지 또 마음고생 할지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라고. 너도 좋아하는 남자애한테 고백하는 거 힘들지? 난 편견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동성애자야. 그런 내가 너한테 좋아한다는 말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니. 넌 손톱만큼도 이해 못 하겠지만. 이제 네가 나한테 얼마나 심한 일을 했는지 알겠어? 지금부터 넌 내가 아는 한 정말 최악의 인간이야.

진작에 이렇게 말했더라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분노가 조금은 사그라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레즈비언으로 살아오면서 당한 가장 끔찍한 일이었다. 레즈비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일반에게 상처를 받아봤을 것이다. 나를 비롯한 모든 레즈비언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기억하기조차 싫었던 내 경험을 써보았다.

마지막으로 일반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 우리가 하는 사랑도 티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성애자들의 사랑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다를 것 하나 없다는 것이다. 단지 남녀가 아닌 여여라는 것 뿐, 그 외에 어떤 차이점도 없다. 그러니 우리를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 마냥 이상하게 보지 않았으면 한다. 그저 옆집 사는 이웃처럼 평범하게 편견없이 봐달라는 것,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편견으로 인해 동성애자들에게 상처 주는 일은 제발 하지 않았으면 한다.

단 한번도 女와 something이 없었던 어느 女의 끄적거림
: 그래도 난 Lesbian인데요?

by 해마

나는 변날에 다년간 몸담아온 21살 먹은 L이다.
L = (대충) 女를 사랑하는 女 늑 女와 사귀는 女.
그렇다면 몇 명이나 사귀어 봤나?
0명. 연애 무경험 기구한 팔자의 L이다.
오호라 그럼 변날 차이기만 했구나!?
NO. 그녀들에게 고백은커녕 좋아한다는 티도 한번 못 내본 L이다.
....그럼..너 좋다는 사람이 다 맘에 들지 않았던 게로군?
으효효... 나 女한테 고백 받아본 적도 없는 변종 L이다.

그래, 나 女와 아무런 something이 없었던, 섹스는 물론 키스도 안해본,
한숨 나오게 남자만 딤다 꼬이는 타고난 쏠로 L이다.
남녀불문 연애경험 전무, 한결같은 엠기쏠로인생.
근데 내가 어떻게 L일 수 있냐고?

나도 잘 모르겠다. 경험에 비춰볼 때 단지 확신하는 것은,
그녀에게 무의식을 지배당하는 동안
가슴에 배달이 난 것처럼 명치끝이 무너져내리듯 살살 아팠다는 것,
미열이 있어 뇌 속에 열이 훅훅 나고 뼛속까지 나른했다는 것,
어쩌다 마주칠 때면 볼이 1.5㎝정도 부어올랐다는 것,
.....쭘이다.
+ 쁘라쓰! 남자한테 감흥이 별로 안생긴다는 뭐 이정도?

나의 연애 스따일은 선천적 쏠로우먼에 딱 맞는다.
혼자 사귀기의 전수! 내가 좋아하는 그녀가 내 마음을 알건 모르건, 다른 사람이랑 사귀건 말건 아무 상관이 없다. 난 그저 그녀에게 세포 하나하나까지 지배당해 오장육부가 바삐 들아가는듯한 그 감정의 풍요로움이 좋을 뿐이다. 내가 슬플때는 그녀가 날 좋아하지 않을때가 아니라 그녀가 내 마음에서 떠날때다. 그녀가 더 이상 좋지 않을 때, 행복한 감정의 풍요로움을 잃어갈 때 난 실연당한 듯 서글프며 때로는 아직도 그녀를 좋아할 것이라고 내 마음에 집착을 하기도 한다. 또 한 女를 좋아하는 동안 다른 女가 눈에 들어올때면 마치 연애하다가 바람이라도 핀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며 스스로를 다스리기도 한다.
자, 이 정도면 별 something 없이도 혼자 바쁘다.

한심한 일방향 연애일지라도 일생 단 한번의 심하게 강렬했던 사랑의 기억이 있었으니, 나에게 그런 격렬한 기억을 남겨준 그녀에게 감사한다.
일기장 속의 그녀는 어이없게도 '하얀 송아지'로 기록되어 있다. 온몸이 근지러워서 TV드라마도 못 보는 내가 이런 닭살 돋는 행각을 벌인 건 분명 위대하신 사랑의 힘이다. 그녀는 새로운 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줬다. 그녀로 인해 발견된 가장 초현실적인 가능성은

'내가 내숭 300단의 수즙음 많은 부끄럼쟁이 아가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숭 300단의 사연을 고백해 보자면,
그녀는 고3때 같은 반이었다. 그녀는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지 않는다. 밥 한끼 먹으려고 길게 줄을 스는 게 꽤나 귀찮았던 모양이다. 나도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지 않았다. 그러면 교실에 둘만 남았다. 그렇다고 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녀는 그냥 자기 할 일을 하고 나는 그걸 훔쳐볼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횡재가 있었으니, 나한테 편의점에 같이 가지 않겠냐고 물어보는 것이다! 사랑의 영향으로 왕 소심 모드로 변신한 나는 그녀와 단 둘이서 걸어갈 편의점까지의 긴 여정을 견디지 못할 것 같아 재빠르게 친구들을 섭외했다. 그리하야 그녀와 나, 쌉사리 친구 두 명은 편의점 나들이를 가게 되었다.

그녀는 신라면과 카페라떼를 먹었다. 내 친구들은 컵라면에 삼각김밥을 먹었다.
.....나는 '쁘띠첼'을 먹었다.
그래 나는 쁘띠첼을 먹었다. 요만~한 그릇에 귤 한 조각 박혀있는, 한입거리도 안되는 쁘띠첼을 먹었다. 한 친구는 나한테 속이 안 좋냐고 물어봤다. 또 한 친구는 3교시 끝나고 매점빵을 두 개 먹었냐고 물어봤다. 난 그냥 귤이 먹고 싶어서 그런다고 했다. 속으로 내가 가증스러웠다. 자꾸 그 전날 감자탕 집에서 격렬하게 돼지뼈를 쪼개던 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치만 그땐 그녀 앞에서 라면을 후루룩거리며 먹을 수 가 없었다. 지금 생각해도 웃겨죽겠다.

대충 이게 女와 한번도 something없었던 어느 女도 Lesbian이라는 이야기다.
커밍아웃을 할때면 가끔 일어나는 패턴이 있다. 커밍아웃 -> 그럼 지금 여자친구 있냐? -> 없다. ->그럼 언제 있었냐? -> 없었다. ->엉? 근데 어떻게 자기가 레즈비언이라고 확신하니?
나도 궁금하다. 니가 처음 이성을 사귀기 전까지 '난 아직 아무도 안사귀어 봤으니까 이성애자라고 확신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는지. 끊임없이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자신에 대해 성찰해봐야 하는 것은 이반의 특권(??—.,—;)인가보다. 도대체 내가 왜! 별로 부끄러울 건 없지만 그래도 자랑 할 것도 못되는 쏠로 경력에 대해 죽죽 쓰고 있는거냐...

엄마에게 쓰는 편지

by twiggy

엄마에게

안녕하세요. 딸이에요. 엄마에게 이렇게 편지를 띄우지만 정작 엄마는 이 편지를 받아볼 수 없을 거에요. 담담한 마음을 안고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나가겠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죠. 하지만 당신은 제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 만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으시고요. 당신의 말에 따르면 좋은 학점을 따고 번듯한 곳에 취직하고 또 괜찮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야겠죠. 절대 그 순서를 바꿔서도 안되고 중간에 한 단계를 제외해서도 안되겠곤 지켜가면서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엄마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엄마, 저는요. '동성연애'를 즐기는 이성애자가 아니에요. 엄마가 "누가 너더러 동성연애 하자고 하니?" 라고 물으셨을 때 아무렇지 않은 듯 거짓말을 했지만 제 속마음은 정말 답답했어요. 엄마, 동성애라는 건 동성애를 '하고 안하는' 그런 단순한 행동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는 마음 그 자체라구요. 물건을 훔치거나 누군가를 때리거나 하는 행동 같이 마음만 먹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더욱 죄도 아니랍니다. 엄마는 나중에 내가 후회할거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혹시나 나쁜 소문이 퍼질까봐 걱정하기도 하시죠. 사랑이 사랑을 좋아하는 게 무슨 가십거리가 될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다르다는 이유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제 생각은 아무래도 엄마가 차마 상상할 수도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학교 마치고 어디 있다 이리 늦게 들어오느냐고 물어보셔도 -엄마는 섬섬하겠지만- 저는 대충 둘러댈 뿐이에요.

하지만 저를 이해해 주실 수는 없는건가요. 전 당신의 걱정대로 되진 않을거에요.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고민도 하고있고요,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도 짜 놓고 있고요 - 정말이지 당신의 부족한 상상력으로 부정하고 있는 저의 정체성이 죄악도 재앙도 아니란 말입니다. - 그럼 엄마가 원하는 대로 상냥한 딸이 될 수도 있을텐데.

그러나 제 소원과는 너무 요원하게도 엄마는 남자친구니 결혼이니 라는 얘기를 꺼내시고 그럴 때면 전 마음 속 저 끝에서부터 거부감이 끓어오릅니다. 전 엄마가 바라는대로 애인도 사귀고 즐겁게 살고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엄마의 생각과는 달리 여자와 만난다 해도 잘 살고 있으니 걱정마세요. 알아요, 물론 내가 원하는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겠죠. 그런데 엄마, 하나 물어볼께요. 엄마는 남자를 좋아하는 이성애자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행복하던가요?

비록 보내지 못할 편지지만 속이 조금은 풀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착찹한 건 여전하네요.

건강하세요.

딸 올림

코멘트) 일반에게는 누구나 정체성을 속이지만, 엄마는 유일하게 속이면서도 마음에 걸리는 존재 (다른 일반들이야 뭐라든, 남이사!)라서 편지의 대상을 엄마로 잡아보았으나 사실 본인과 엄마의 관계는 그닥 살가운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허심탄회한 어조의 편지가 나오지 않았다.

이성애만을 정상적으로 교육받고 자라온 기성세대들의 동성애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편견은 또래세대의 그것보다 더 제거하기가 어려워 보이네요.

우리도 사랑을 한다

by kAZE

현진이에게

안녕? 이렇게 편지쓰는게 굉장히 오랜만이야. 일전에 네가 메일을 보낸 이후로 답장을 보내지 못했네. 미안. 항상 나는 답장을 너무 늦게 보냈어. 그렇지? 꼭 네가 메일을, 또는 편지를 두세 통은 보내고 그제서야 내가 뒤늦은 답장을 네게 전했던 것 같다. 그랬던게, 지금의 나에게 얼마나 후회되는 일이고, 얼마나 바보같았던 일일지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어. 이제는 내가 편지를 쓰고 싶을 때, 네게 안부를 전하고 싶을 때, 더 이상 펜을 들 수도, 메일 주소를 찾아 타자기를 두드릴 수도 없게 되어버렸구나.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 보면 난 네게 그다지 훌륭한 연인이지 못했던 것 같아. 대구에서 서울까지, 장거리 연애에 금새 지쳐버리고는 투덜거리고, 심지어 사귀고 있는 중에도 '장거리 연애는 도저히 못해먹겠다'라고 말하는 나였으니까. 분명 네가 그 말에 얼마나 당황해하며 상처받았을지 알고 있었어. 근데 나는 왜 그 말을 던지는 도중엔 그런 생각을 눈꼽만큼도 하지 못했을까. 나와 통화할 땐 항상 즐거운 목소리에 기분좋은 얘기들만 늘어놓는 너가, 나를 너무 좋아하는, 앞으로도 계속 나만 바라볼 것 같은 네가 그렇게도 믿음직스러워 보였던걸까. 그렇게 생각없이 연인에게 아픈 말을 던져도 상관없어 보일만큼? 한번쯤은 생각없이 툭툭 말을 내뱉었던 내게 뭐라고 한마디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다고 말이야. 그랬다면 널 보낸 후에 내가 괴로워한 시간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을까.

가끔은 있잖아. 너와 함께했던 것들이 떠오르곤 해. 그 기억들이 예전처럼, 네가 예고없이 그렇게 떠났을 때처럼 날 괴롭히진 않아. 단지 함께 찾았던 장소를, 함께 걸었던 길을 너 없이 혼자 다시 걷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 그때만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서러워져. 그간 힘들게 자운, 평소엔 기억해내려 했지만 섬섬하게도 절대 떠오르지 않던 너의 농담이라던가 자주하던 말들이 그 길을 따라 물밀듯이 쏟아져 내려와. 내 가슴이 답답해질만큼. 그날도 넌 나와 말도 안 되는 농담을 섞으며 숨이 넘어갈 듯 웃었는데. 함께 오르던 계단이 그날따라 어찌나 길어보였는지. 계단 꼭대기를 바라보며 떠들다간 어느샌가 내가 혼잣말을 하고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어. 바보같이. 너는 계단 아래에 손발이 차가워진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린채로 누워있었는데 말야. 머릿속엔 오만가지 생각이 맴돌고 있었지만 그 땐 마치 시간이 모두 멈춰버린 것만 같았어. 생각이 뒤섞인 채로 몸을 바삐 움직이다가 병원에 함께 있는 나를 발견하곤 너무 놀랐었는데. 그때까지 난 너가 내 동생과 같은 수술을 했기에, 내 동생과 같은 자국이 있고, 내 동생처럼 얼굴이 하얗고 손발이 차가운 파란색이라는 것 밖엔 아는 것이 없었어. 그와 동시에 엄마가 했었던 나쁜 이야기들 -스무해면 많이 산거라고, 수술 후에 살아난 아이들이 얼마 없었다고- 은 생각도 하기 싫었고, 듣자마자 지우기에 바빴지.

클리닉 2차시

*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지킬 도리가 있고,
어른 난 좀 그래."



클리닉 2차시에서는
당신이 말하는
'도리'를 지키는 사회가,
동성애자들에게 하는 '짓거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을 안정시켜줄 물약

그녀는 하느님의 자녀, 그리고 레즈비언, or 그러나 레즈비언

by Lego

나는 기독교 고등학교를 다녔다. 지금도 기독교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러한 나의 환경은 레즈비언으로서 기독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나는 이 글에서 기독교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기독교가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레즈비언으로서 기독교적 교육을 받은 나의 경험과, 종교와 동성애에 관한 편견에 대해 말하고 싶을 뿐이다.

1.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동성애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동성애는 한마디로 죽임을 받아야 마땅한 일로 평가된다. 따지고 보면, 예수의 직접적인 가르침 속에는 동성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하지만 모세의 율법(레위기)이나, 사도 바울의 글(로마서) 에는 동성애에 대한 강한 정죄를 나타내고 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구약성서 레위기 18장 22절에서는 **"너는 여자와 교합(交合) 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라고 말하고 있고, 같은 레위기 2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1]"**라고 하고 있다. 또한, 신약성서 로마서 1장 27절에서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으니라"**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신약성서 전반에 걸쳐서 동성애 뿐 아니라 혼인 관계 이외의 성관계, 동물과의 성관계 등의 다른 성관계에 대해서도 금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비난이 그 당시 사회적 관습의 맥락에서 읽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현재보다 동성애가 흔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이성애적 관점으로 동성애를 죄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라 표현 했을 것이다.

2. 기독교학교 에서의 동성애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동성애'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공립학교를 다녀서 인지 나의 동성애적 정체성에 그렇다 할 고민을 하게 한 교육은 받지 않았다. 하지만, 기독교 고등학교(Christian High School 또는 Mission School)에 진학하여 '기독교세계관'이라는 수업을 들음으로써 나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되었다. 내가 다녔던 학교는 일주일에 한번 씩 채플과 기독교세계관 이라는 수업을 했다. 고등학교 1학년의 어느 날, 이날도 어김없이 기독교세계관 수업을 들었다. 하지만 그날의 수업은 호모포비아를 아주 가까이서 실감할 수 있었다. "여기 반에는 동성애자 없지요?"

---

1) "그 피가…돌아가리라"는 문자적으로 '그의 피가 그의 안에 있다'로 이 말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하다는 뜻이다.

라는 말로 시작한 수업은 "여러분 여자를 좋아하거나 사랑해선 안됩니다."로 끝났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는 동성애는 당연히 부정적이지만, 저 말들은 레즈비언인 나에게 충분히 혼란을 주었고 아직까지도 그 수업이 생생할 만큼의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았다. 그 수업 이후 아이들은 친구끼리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할 때마다 "너네 레즈냐?" 라는 식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였다.

기독교에 대한 아무런 감정이나 지식이 없었던 나에게도 변화가 생겼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기독교가 이렇게나 이성애 주의적이고 소수를 무시하는 종교였다니..'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기독교는 나에게 앞뒤가 꽉 막힌 초 보수주의적인 종교로 인식되었다.

기독교학교에서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그의 교육이념에 맞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한 사람의 성 정체성을 이성애로 강요하는 등 너무 한쪽(다수)으로 치우친 교육을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존중과 평등, 소수존중을 가르쳐야 한다. 기독교 정신만을 강요하기 전에 기독교적 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것 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교육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 교육이란 다수의 생각을 무지한 학생들에게 주입시켜 그것만이 옳은 것 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자신이 결론 내릴 수 있게 하는 도우미 역할이라 생각한다.

3. 종교를 가진 사람도 동성애자일 수 있다.

위에서부터 글을 읽었다면, 당신은 이렇게 질문 할 수 있다. "기독교인은 그 교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아니겠네?" 나는 이 질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 종교가 어떠한 사람이 사랑하는 상대를 결정 할 수는 없다. 내가 기독교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만난 10여명의 동성애자들 중에서 6명은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 자신 있게 말 하는 아이들 이었다. 기도회도 꼬박꼬박 가고, 자신의 신앙생활도 너무나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 이다. 심지어 목회자의 자녀도 있었다. (여기서 '그 아이들의 신앙심이 정말 간절하지 못하거나 부족한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당신! - 그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본 나의 말을 믿으시라.) 나는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기독교인이면서 레즈비언인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보았다.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이런 모습으로 나를 만드셨으니, 나의 정체성이 기독교 교리에 부합하지는 않더라도 받아들였어.", "다 계획이 있어서 그러셨을 거야. 내가 앞으로 이성애자가 될지 아니면 동성애자로 계속 살아갈지는 몰라도..", "내가 이렇다는 걸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내 곁에 어떠한 사람을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언젠간 돌아 갈 것 이지만, 현재는 죄를 짓는 거라 괴롭지.." 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종교와 자신의 정체성 가운데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느꼈다. 교회 내의 문제,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한 동성애자들이 겪는 '성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의 충돌'의 문제가 아닐까? 가령 미국에서는 이 문제로 고민하던 청소년들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언제나 그렇듯 문제는 성경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석, 즉 성경의 해석을 독점하는 자가 바로 신이 되는 것이다. 교회의 경직된 태도로 인해 젊은이들이 목숨을 끊어야 한다면 그것은 결코 신의 뜻이 아닐 것이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기독교와 동성애적 정체성 중에 어떠한 것을 선택 할지, 또는 기독교인 레즈비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종교를 가진 사람도 동성애자 일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 글을 쓰면서 몇 명의 기독교인과 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기독교가 동성애에 대하여 심각히 반대(?)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대답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렇다. 1번에 쓴 것처럼 레위기나 로마서 등에서 동성애를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되물었다. 그러면 성경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면이나 양모로 된 옷을 입지 말라고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거냐고. 내 말을 들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시대가 변해오면서 바뀐 것 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때의 문화 또는 생활과 지금은 다르다고, 그것을 생각해야한다고. 그럼 나는 이렇게 되묻고 싶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권운동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현재는 어떻게 볼 것이냐고. 우리가 인권운동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거나 면이나 양모로 된 옷을 입는 것 보다 간과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되묻고 싶다.

'기독교인'이기 전에 '인간'인 당신!
생각을 해보시라!
나와 '차이'가 있다고 그 사람을 '차별' 할 수 있겠는가?!

[성명] 동성애 혐오 조장하고 청소년 동성애자를 벼랑 끝으로 내몬 MBC의 반인권적 보도행태를 규탄한다!

2005년 7월 13일 오전 7시 30분경 방영된 문화방송(MBC) <뉴스투데이-현장 속으로>는 "'이반' 문화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청소년 동성애자를 마치 탈선을 한 청소년 취급하며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강화시키는 내용의 반인권적 보도를 했다.

1. MBC <뉴스투데이>는 '이반문화'에 대해 보도한다고 하면서도,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부르는 용어인 '이반'(이성애를 '일반'적인 것으로 보는 사회에서 동성애자인 자신을 긍정하기 위해 만든 용어)을 "이성에 반대한다"는 사실 무근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등, 동성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조차 없이 무책임하게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2. <뉴스투데이>는 동성애가 오래전 정신질환 항목에서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전문의를 내세워 청소년들의 동성애는 '또래 집단에서 서로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일시적 현상'일 뿐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없어지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동성애를 사람의 통합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철없는 시절 휩쓸린 '행위'로 치부하는 것으로, 성정체성에 대해 스스로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보도행위다.

3. 또한 "전(前) 이반 소속 여중/고생"이라는 앞뒤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이반이 일종의 비행조직인양 묘사하여, 사회적으로 10대 레즈비언에 대한 위화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보도행위로 말미암아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이성애 중심적인 사회에서 제대로 된 정보도 얻지 못한 채 갈수록 고립되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4. <뉴스투데이>는 언론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보도윤리마저 버렸다. 마치 범죄현장인양 레즈비언 전용 바(bar)에 몰래카메라를 들고 잠입해 촬영했으며, 성인업소임에도 불구하고 "10대 전용 까페"라고 보도하는 등 허위보도를 했다. 또 많은 10대 여성들의 얼굴을 노출시켜 이들을 위험에 빠뜨렸으며, 10대 레즈비언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까페에 들어가 허락 없이 게재된 사진을 촬영하는 등, 언론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5. <뉴스투데이>는 동성애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사회에 해악이 되는 것으로 취급했다. 동성애자 인권행사 포스터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버젓이 붙어있다"고 보도하여, MBC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이 심각한 '동성애 혐오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6. <뉴스투데이>는 포털 사이트에서 '이반'을 금칙어나 성인인증 단어에서 해제시킨 것을 두고 "일반학생들마저 동성애적 성향에 무감각해지"게 만든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4년간 동성애자들의 투쟁으로 쟁취한 청소년 보호법 상 동성애자 차별조항 삭제의 성과에 대한 위협이자 공격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본 조항에 대해 삭제권고를 한 배경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7. 청소년 동성애자는 학교에서 배제당하고 차별받는 현실 속에 있다. 학교 성교육과 교

과교육은 이성애 중심적이며 동성애를 에이즈의 주범이자 성적 퇴폐의 결과로 묘사한다. 또한, 학교에서 행하는 '이반검열'은 청소년 동성애자를 아예 학교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교사가 부모에게 자녀의 정체성을 아웃팅 시키고, 친구와 스킨쉽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자퇴하게 만드는 학교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뉴스투데이가 짧은 머리의 여학생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지나가는 모습을 반복하여 보도한 것은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반검열'의 작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입시경쟁과 감옥 같은 학교 생활을 견디지 못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배제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어나는 '탈선'과 '비행'의 하나가 10대 여학생 이반문화인 양 보도한 것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에 대한 공격인 동시에 획일적인 입시제도와 반인권적 학교 교육으로 억압 받는 모든 청소년들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뉴스투데이는 이 사회에 살아가는 동성애자들을 접해서는 안 될 유해한 집단으로 몰아세웠다. 이는 동성애자 모두의 삶에 대한 위협이며,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우리는 뉴스투데이의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고 청소년 동성애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반인권적 보도행태를 규탄한다. 따라서 7월 18일까지 다음의 요구 안이 수용되지 않을 시 MBC와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을 상대로 대대적인 투쟁을 벌여갈 것이며, 국내외적인 여론화를 통해 우리의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MBC는 동성애자 차별을 조장하고, 동성애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10대 동성애자들의 신변을 위협한 반인권적 보도에 대해 방송을 통해 공개 사과하라!

하나, MBC는 해당 제작진과 취재진을 징계하라!

하나, MBC는 해당 프로그램으로 인해 동성애자들이 더 이상 신변을 위협 받지 않도록, 온라인을 통한 본 방송의 유포를 당장 중단하라!

하나, MBC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 모두에 대해 '동성애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라!

하나, MBC는 동성애자 관련 인권보도지침을 마련하라!

2005년 7월 14일

동성애자인권연대, 레즈비언인권연구소,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성소수자모임 붉은이반,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여성이반포털사이트 티지넷, 여성주의저널 일다, 에이즈 인권모임 나누리+,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 WAW, 평화인권연대,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L 인권단체를 준비하는 새싹

2005

태적 상상력! 역시 재미있어요~
->무감각 :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성애에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보고 들은 것이 거의 이성애뿐이라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 해보고 그냥 살아가지요. 좋아하는 동성이 생겨도 그게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지나치는 일도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두 배로 사랑할 확률이 있는데 반밖에 못 보고 살다니요. 요즘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이나 인터넷, 동성애자 단체 등에서 동성애에 대한 것들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동성애에 대한 감각을 많이들 갖곤 합니다. 이건 '유감각'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왜 기사는 반대로 무감각 해진다고 썼을까.. 역시 반어법을 이용한 개그였나요?

일반 학생 A:자기가 좋으면 그만이지 않아요?

일반 학생 B: 제가 그친구가 좋다면 한번은 생각은 해봤을 것 같아요.

기자: 이들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와 학부모는 이런 세태가 당혹스럽습니다.

前 학생부 지도 교사: 참. 내가 지도하는게 시대에 뒤떨어진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반 학생 부모: 학교에서 이반이라는 연락을 받고 너무 충격적이고 진짜 황당하고 너무 착잡합니다. 이반이란 것을.... 정말...정말 민망합니다...

-> 저는 '교사와 학부모가 이반 청소년을 지도 할 때 당황한다는 세태'에 당황했습니다. 게다가 학교에서 집에다 "당신 자식이 이반입니다"하고 연락을 했다니 정말 당황스럽군요. 뭐 따지고 보면 동성애가 사회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당황'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네요. 오히려 이 세태에 '달관'했다고 해야 할까... 이반이라는 사실이 떳떳치 못한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사회에서 이반을 바라보는 잘못 된 시선 때문에 자신이 이반이란 것을 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충분한 준비와 방어태세가 마련된 뒤에 자신이 결정해서 해야 할 일을 학교에서 멋대로 말하다니요!
자자자 교사와 학부모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잘못된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도 마시고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 연락하세요!

기자 : 하지만 이는 어디엔가 속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기의 일시적인 심리가 나타난 것일 뿐, 실제로 동성애적 성향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전재용 정신과 전문의 : 그런 경우는 또래집단에서 서로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지 동성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어디엔가 속하고 싶다면 지천에 깔린 거대한 이성애 집단에 속하는 것이 더 쉽고 빠르지 않을까요? 저도 청소년기에 어디엔가 속하고 싶은 마음에 일시적으로 이성애 성향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동성애적 성향은 아니다',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다'.. 자기네가 좋다는데 이것도 저것도 동성애가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동성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의사양반, 이런 식으로 주위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동성애는 모두 부정하고 부정하다가 결국 자신과 아주 먼 이야기, 희한하고 변태스러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동성애라는 지긋지긋한 명제를 세울 마음인가보군. 동성애를 인정하세요. 동성애자는 그냥 당신의 주위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 입니다. 일시적이건 장기전이건 동성애는 동성애지요. 청소년 이반이 후에 이성을 사랑한다 해도 지금 느끼는 감정은 동성애입니다.

기자 :잠시 이반으로 행동했던 학생들의 대부분은 과거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前 이반 소속 여고생 : 커서 후회할 것 같아요. 왜그랬는지...지금이라도 빨리 마음을 잡고 제대로 예전처럼 지내야죠.

前 이반 소속 여중생 : 더럽다는 식으로 비춰지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기자 : 성적 위주의 학교 생활에서 오는 공허와 이로 인한 방황을 해소할 길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한 반에 한명꼴로 차지하는 10대 여학생의 이반 문화는 갈수록 확산 될 전망입니다. 현장속으로 입니다.

-취재 : 김승후

-구성 : 진민재

-제작 : 시스템 비전

-> 후회 : 후회를 하는 이유는 동성애자인 자신을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 때문입니다. 위 학생의 말대로 더럽다는 식으로 비춰지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지요. 인터뷰 뒤에 감춰진 이런 진실을 말해주지 않다니 역시 기사가 아니라 개그를 하기로 마음먹은 듯ㅡ.

->성적 위주의~마련되지 않는 한 : 개그 쇼의 클라이막스! 갔다 붙이기의 결정!! 저는 이대목에서 미천소가 영어강의를 할 때 느끼던 희열을 느꼈습니다. 성적의 압박과 동성애가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대학이 평준화가 되면 청소년기의 동성애는 사라지는 것이랍니까? 아하하하하하하하

김미화 씨가 라디오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뉴스의 연성화 어쩌구 하면서 걱정을 해댔습니다. 김미화 씨는 똑 부러지게 진행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진정한 뉴스의 연성화가 나타났습니다. 연성화를 넘어 논리도 개념도 없이 흐느적거리는 이 개그대본이라니!

〈이반검열〉 속 그 아이

: 학교라는 공간에서 멈춰있던 시간

정언 기자
2005-05-23

정확히 언제쯤의 일인지는 생각나지 않는다. 몸에 꼭 맞는 교복과 비좁고 딱딱한 1인용 책상, 하루 일과가 숨쉴 틈도 없다는 듯이 네모난 시간표에 빽빽이 적혀있던 것으로 기억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시간 역시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멈어있었다고 늘 느꼈기에. 기억을 억지로라도 더듬어 보라면 2000년, 2001년 그쯤의 일이 아닌가 싶다.

나는 고등학교 때 동성애자로 정체화를 했으며, 매우 운이 좋게도 학교에 레즈비언 친구들이 몇몇 있었다. 요즘처럼 '정체성을 기반으로 인터넷에서 만나 알고 보니 같은 학교더라' 같은 것이 아니라,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서 마음이 맞고 취향이 맞는 친구들끼리 모이고 친해지고, 그러고 보니 모두들 이성애자는 아니더라' 하는 식이었다.

친구들 중에는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친구도 있었고, 고민하지 않는 친구도 있었고, 이미 고민이 끝난 친구도 있었다. 같은 정체성을 가진 친구들이 더 필요한 친구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었으며, 활발하게 이반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었다.

그 중 한 친구가 어느 날 0교시 시작도 전에, 허겁지겁 우리 반에 찾아왔다. 뭉 소리가 나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복도 구석으로 불러내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너 탈퇴했어?"였다. 얘가 왜 이래 하는 표정으로 "뭐?"하고 반문했더니, 친구는 꽥 다급한 목소리로 "난리가 났는데 왜 너만 모르느냐"면서 모 사이트에 있는 10대 이반클럽에 가입해있는 사람들 아이디로 신상정보를 찾아내, 학교에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통보한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있다는 것이었다.

친구는 내 손을 끌고 다른 반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미처 설명도 듣기 전에 종이 울렸고, 우리는 각각 교실로 흩어졌다. 점심시간에 모여서 친구의 이야기를 다시 듣자니, 어떤 지역 어느 학교에서 몇몇 아이들이 이반임이 걸렸고, 선생들의 추궁을 통해 그 또래 이반들의 모임 이야기가 나오고, 일이 점점 커져서 이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고 들었단다. 소문은 인터넷을 타고, 아니 오히려 그보다도 빨리 또래 아이들에게 퍼졌다.

그 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신상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위법인데다가, 학교에서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로 학생을 자른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했던 내가 그날 저녁 문제의 모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탈퇴를 할 것인지 미처 고민하기도 전에, 늘 보이던 클럽이름 대신 "마니사냥 혹은 이반사냥을 이유로 클럽을 폐쇄합니다" 라는 내용

의 쪽지 몇 통을 확인해야 했다.

소문이 1주일 가량 혹은 그 보다 좀 더 오래 지속되는 동안 어느 지역에서는 이미 몇몇 학교에 통보가 갔다느니, 몇 명이 퇴학을 당했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전해 들었다. 무성하던 소문은 시간이 지나자 사그라졌다. 나와 내 친구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다.

몇 년이 지났다. 지긋지긋했던 교문 그 앞에서 졸업 기념사진을 친구들과 찍은 것을 마지막으로 학교에는 일절 발길을 끊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내 쪽에서 굳이 외면하지 않아도, 학교와 옛 기억들은 아스라히 사라져갔다. 학교는 조금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상에서 변화에 제일 더딘 곳 중 하나가, 아니 절대 변하지 않을 곳 중 하나가 학교 아니던가. 그러나 학교 역시 변했다. 불과 몇 년 전 내가 '되도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벌어지고 있었다. 색출과 검열과 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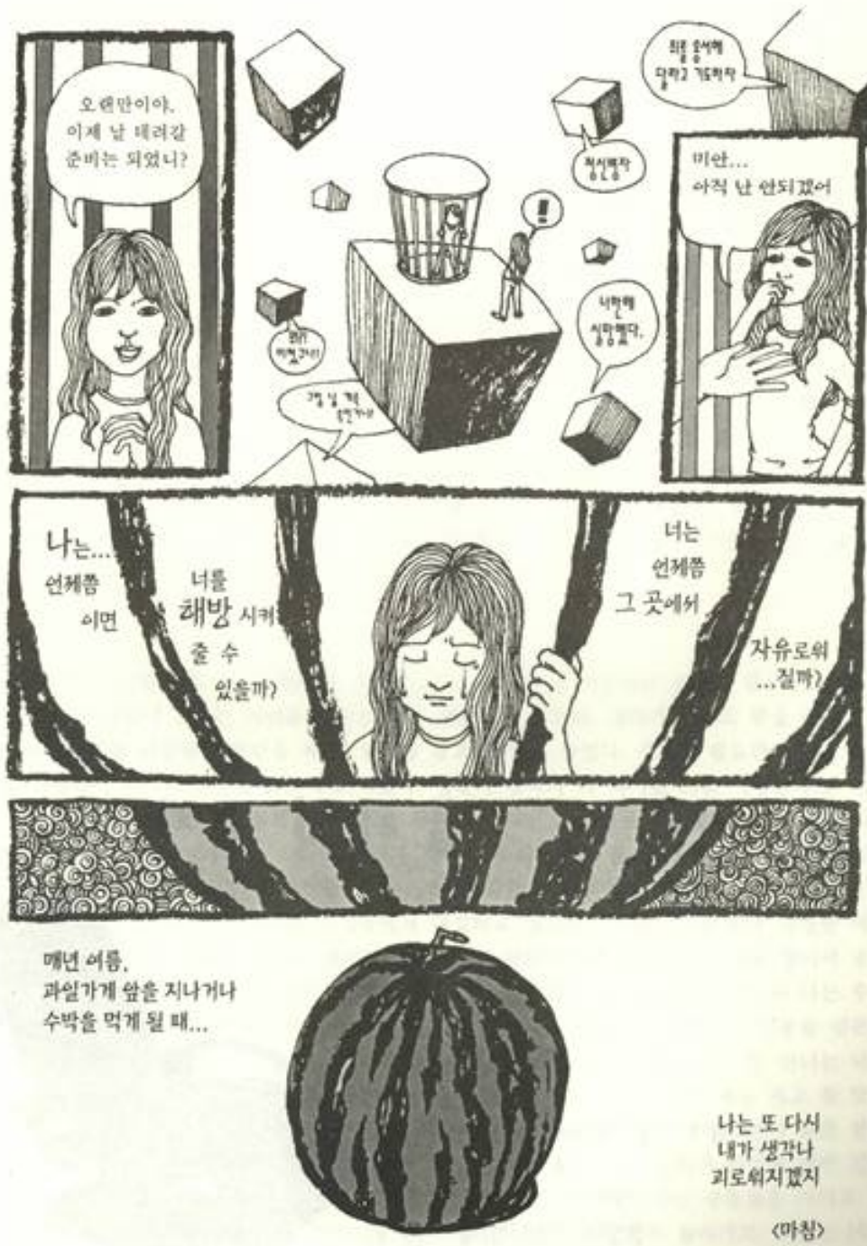
팔목에 빨간 줄을 몇 개나 가지고 있던, 영화 <이반검열> 안의 그 아이는, 그러나 다행히도 계속해서 카메라에 대고 말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사회에서 가르쳐준 말도 아니었고, 학교나 선생의 말을 되풀이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 스스로의 언어였다. 아이들은 얼마나 현실이 부조리한지를, 부당한지를 스스로 습득한, 스스로의 언어로 고발해내고 분노했다.

언어와 사유, 행동에 관한 그럴싸한 인용문을 달아 이 글을 마무리하려다가는 커서를 되돌렸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해야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사람취급도 안하고 그럼 안되지' 하고, 어른들 말하는 어려운 단어 하나 쓰지 않고도, 문제를 꿰뚫었던 따끔한 영상 속 한 마디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 www.ildaro.com

[본 글은 여성주의저널 '일다'(http://www.ildaro.com)내 일다칼럼-이반감성에 게재되었던 기사입니다.]





매년 여름,
과일가게 앞을 지나거나
수박을 먹게 될 때...

나는 또 다시
내가 생각나
괴로워지겠지

〈마침〉



우리의 특별한 집들이

by 가루

언니와 나는 3년째 함께 살고 있다. 연애를 시작하고 6개월쯤 지나고 나서 동거를 생각했던 것 같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 욕구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동거에 이르기까지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기 마련.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제가 비교적 적었다. 둘 다 부산에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고향에서 떠나와 자취하는 입장이었으니. 여자 둘이 함께 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문화까지. 함께 살고 벌써 두 번의 이사를 했다. 처음엔 돈이 없다 보니 흠이 있는 집엘 들어가게 되었고, 보일라를 아무리 돌려도 입에서 입김이 호호 나는 집에서 겨울을 보내고 나서, 우리는 월세를 좀 부담하더라도 살기 편한 원룸으로 이사가기로 했다. 그렇게 원룸으로 이사를 가서 1년이 좀 넘게 살았다. 그런데 1년쯤 지나니 원룸 월세로 꼬박꼬박 나가는 30만원이 너무 아깝게 여겨졌고, 그렇담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으로 전환하고 차라리 은행이자를 물자는 쪽으로 생각이 가게 되었다. 그래서 올해 5월 말, 두 번째 이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과는, 만족스러운 편이다. 집주인 아저씨도 해병대 출신이긴 하지만 정감있고, 집도 원룸보다 넓고 깨끗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세 부담이 줄었다.

이사를 하니, 이반 커뮤니티 사람들이 집들이하라고 난리였다. 사람들을 초대해 집구경도 시켜주고 오랜만에 다같이 모이는 자리를 가지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다. 게다가 선물도 받을 수 있으니까. ㅋㅋ 초대할 사람들의 명단을 짜고, 날짜를 잡고, 연락을 돌렸다. 새집에 필요한 물건들의 목록을 작성해서 각각의 손님들에게 배당(?)했다. 집들이 날짜가 다 되어갈 즈음 사람들에게 "집들이 선물 고민되시지요?"라는 심히 뻔뻔스러운 문자를 날리면, 사람들은 한결같이 "무슨 선물 헤드릴까요?"란 답문자를 보내온다. 그러면 우리가 목록에 올려두었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이다. ㅋㅋ 그런데 집들이 때 대접할 음식이 고민꺼리였다. 시켜먹자니 성의없어 보일 것 같고, 언니와 나도 정성스레 만든 음식을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싶었다. 그래서 고심 끝에 결정한 메뉴는 수육과 쟁반국수. 수육은 고기를 삶기만 하면 되고, 쟁반국수는 여러가지 야채를 썰어서 소스(슈퍼에서 판다)와 함께 국수에 얹기만 하면 되니 쉽겠다 싶었다. 하지만 웬걸, 언니와 나는 수육과 쟁반국수 재료를 손질해 놓는다고 집들이 전날 새벽 3시에 잠들 수 있었다. 10인분을 만든다는 게 장난이 아님을 알았다. 집들이 날 저녁 7시부터 사람들이 속속 집에 왔다. 한 언니는 너무나 고맙게도 회튀김을 손수 해오기도 하였다. 수육과 쟁반국수는 처음 시도한 메뉴 치고 참 맛있었다.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캔맥주를 꺼내어 다같이 백주도 마셨다. 그러면서 요즘 살아가는 이야기나 여름 휴가 계획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가 초대한 이반 친구들 중에는 10년째 함께 사는 커플도 있고, 싱글인 사람도 있다. 이반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함께 나눌 이야기도 많고, 함께 있으면 참 즐겁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우리는 10인분의 그릇을 치우고 집청소를 한다고 새벽 2시가 넘어 잠에 들었다. 집들이는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 그래도 우리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삶의 고민이나 일상의 자질구레한 점들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다.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들어온 지도 4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다. 주위에서 5년을 사귀다 깨지는 커플도 보았고, 커플 중 한쪽이 결혼을 하여 깨지는 경우도 보았다. 그러면서 느끼게 된 것은, 이반 커플일수록 고립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어떤 이반들은 커플이 되고나면 커뮤니티와 멀어져서 자신들끼리만 생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가 힘들다. 커플 사이에 생기는 문제, 결혼 압력의 문제 등에 대해 자신과 마찬가지의 상황에 있는 다른 이반들과 소통하고 조언을 얻고, 힘을 받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이 버티기는 참 힘든 일인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로서 결혼하지 않고, 자신의 성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일은 참 힘들다. 언니와 나는 운이 좋게도 커플이 고립되면 안된다는 것을 알려준 선배들이 있고, 주위에 믿을만한 좋은 친구들이 있다. 그리고 함께 살고 있다. 이번 집들이는 남들이 보기엔 그냥 평범한 집들이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언니와 나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 확인하고 인정받는 중요한 행사(?)였다.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내가 여자를 사귀기 전까지는 내 인생에 결혼은 없다고 생각했고 결혼제도를 참 우습게 생각했다.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기만 하면 주위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인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친언니 아이의 돌잔치에 가서, 난 커다란 박탈감을 느꼈다. 친언니 부부를 아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아이의 건강을 축하해 주고, 두 사람과 아이의 앞날에 축복을 해 주었다. 언니와 나도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함께 하는 부부와 마찬가지의 사이인데, 사람들에게 우리 관계를 내보이고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큰 박탈감으로 다가왔다. 사람과 사람이 사랑해서 함께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두 사람에게 닥치오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함을 갈수록 느끼고 있다. 조언을 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 격려해줄 사람도 필요하다. 언니와 나는 결혼제도로 그것을 보장받진 못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관계를 지속시켜 줄 여러 지원군(?)들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그게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관계이다. 갈수록 사랑은 내가 그려왔던 것처럼 완전하거나 불변의 것이 아니지만, 내 인생에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소중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

L porno를 보는 여자

by 오스

1. What is a 'porno'?

☞포노그래피(pornography)의 준말인 포노(porno)의 일본식 발음. 음란물·춘화(春畵)·도색주의적 문학작품 등을 말한다.

☞성애를 주로 다루는 영화. 폰(porn),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 섹스플로이테이션 필름(sexploitation film), 스킨 플릭(skin flick) 등으로도 불린다. 영화사 초창기 때부터 대중적인 흥행을 노려 음성적으로 제작되다가 미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에 대법원의 판결 이후 영화관에서도 양성적으로 상영되기에 이르렀고 이같은 추세에 의해 70년대에 들어와서는 실제적인 성애장면이 사실적으로 다루어지되 전문영화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는 하드 코어 포르노(hard core porno)와 완전누드는 허용하되 성애장면은 다소 모조적 경향을 띠어 일반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소프트 코어 포르노(soft core porno)의 두 종류로 분류되고 있다.

포르노. 사실 입에 담기도 약간은 민망한 말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는 '금지어'로 지정될 만한 단어이다. -사실 나는 포르노의 정확한 의미를 찾기 위해 인터넷으로 사전을 뒤졌으나 이 단어를 검색하려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다. 사실 약간은 당황스러웠다.

뭐 그건 그렇고, 성인 인증까지 거쳐가며 내가 찾은 포르노의 의미는 위와 같다. 한마디로 '미성년자 관람불가'라는 말과 같다고 보면 되겠다. 단어 뜻 찾기란 이렇게 어렵다지만 인터넷 성인 사이트들의 범람으로 실제 포르노 영상을 접하는 것은 연령층에 관계없이 쉬워졌다.

민망한 말이지만 나도 꽤나 어렸을 때부터 별다른 어려움 없이 포르노를 접했었다. 내가 본 포르노는 다분히 남성위주의 포르노로 대부분 아주 이쁘고 귀여운 여자가 그야말로 '아저씨'의 포스를 풍기는 평범한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는 내용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처음에는 여자가 섹스를 계속 거부하는 듯한 행동을 한다. 그러다가 남자가 거친 행동을 하면서 무자비한 섹스를 시도한다. 끝부분에 가면 여자는 좋은건지 싫은건지 알 수 없는 신음을 내뱉다가 결국은 '좋아'라는 말을 하면서 그 섹스에 대해 굉장한 만족감을 나타낸다. 그것이 대부분 포르노의 내용이다.

그것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과연 저것을 보고 흥분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던가 '여자가 불쌍하다.' 정도 였던 것 같다. 언제나 비슷한 모티브로,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나와서 섹

스를 한다. 그 섹스는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았고 서로가 즐기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다. 평범한 외모의 남자가 예쁜 여자를 강간해도 '결국 여자는 해주면 좋아하더라~'식의 섹스판타지를 만족시켜 흥미위주의 시선을 잡아끌기에만 충분한 내용이었다. 그 시선이란 것은 남녀 모두의 시선이 아닌 남성의 시선임이 분명하다. (물론 다양한 성 취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예외란 있겠지만)

포르노는 인간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의 엿보기 좋아하는 심리를 잘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포르노를 만드는 사람들은 보통 남성의 시각으로 포르노를 제작한다. 어디서 듣기로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삽입 행위에 가장 큰 흥분을 느끼고 여성들은 애무의 단계에서 가장 큰 흥분을 느낀다고 한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포르노는 삽입 행위가 포르노의 90%를 채우는 것 같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삽입이라는 개념은 남녀의 섹스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 , 미국 등 거의 모든 나라의 포르노는 남녀의 섹스를 그린 것이 대부분이다.

2. 레즈비언 포르노

동성커플의 섹스. 사람들은 동성커플의 섹스가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갖기도 한다. 특히나 여-여 커플의 섹스는 더욱 그렇다. 레즈비언들이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의 하나는 "그럼 너네도 섹스해?" "어떻게 해?" 라고 한다. 이성애자들이 생각하는 섹스는 보통의 포르노에서 그리고 있는 그러한 섹스가 당연한 것이었고 그 이외의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레즈비언의 섹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레즈비언의 섹스에도 당연히 남성의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이러한 편견이 생긴 이유는 잘못된 포르노 문화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 '이브의 아름다운 키스'라는 영화를 보면 남성들의 관음심리 때문에 레즈비언 포르노가 제작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을 Double sexy 라고 한다고 한다.

내가 처음 접한 동성애 포르노는 남-남 커플의 포르노였다. 굉장히 이쁘게 생긴 남자아이 - 말 그대로 '아이'였다.- 두 명이 나와서 섹스를 하는 포르노였다.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섹스에서는 애무의 단계가 있기 마련인데 이런 포르노의 특징은 애무의 단계 보다는 단순히 '섹스'라는 그 행동에만 주시가 되어있다.- 물론 그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서로 애무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포르노에서는 자극적인 장면만 모아서 영상을 편집하기 때문에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말이다. 그것이 내가 처음 접한 동성애 포르노였고 자극

적이다는 것 이외에 기분이 심하게 나쁘다거나 하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레즈비언 포르노는 그렇지 않았다. - 내가 정의하는 레즈비언 포르노란 철저하게 여성 두명이서 하는 섹스를 영상화 시킨 것이다. 레즈비언 포르노를 표방한 많은 포르노에서는 꼭 남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여성 두 명이서 애무를 하고 있으면 꼭 남자가 등장한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트리플 섹스를 하게 된다.

또 다른 경우로는 (지금 말하려는 포르노는 내 관점에서는 절대 레즈비언 포르노가 아니다.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쇼'라고 생각한다.) 흔히 말하는 '성인방송'의 포르노인데 애무도 없고 섹스도 없고 달도같은 성인물품을 가지고 마스터베이션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러한 경우에 혼자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이 출연을 하게 되면 그것은 '레즈비언 포르노'로 둔갑하게 되는 것이다. 그 밖에도 많은 종류의 '레즈비언 포르노를 표방한 포르노'에서의 여-여 커플의 섹스는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고 그래서 남자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논리로 내용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다.

물론 그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포르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무척 희귀하고 구하기도 힘들지만 그나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포르노도 가끔 있었다. 하지만 그 포르노라는 것도 찾기가 쉽지는 않고 레즈비언의 심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서 보면서 전율이나 감동을 받기는 힘들었다. '포르노따위에서 뭘 그렇게 많은 것을 바라냐'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다. 이왕이면 감정적으로도 뭔가를 느끼고 싶으니까.

미국의 드라마 중에 'L word'라는 레즈비언 드라마가 있다. 거기서 나오는 한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다. 그 장면을 짧게 말하면 남녀 커플 중에 여성이 어떤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그 남자와의 결혼을 파기시키게 된다. 그 상황을 알게 된 어떤 사람이 하는 말:

"포르노를 보면 두 여자가 섹스를 하고 있으면
남자가 들어와 멋드러지게 한 판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녀들이 그걸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녀들은 남자 없이도 잘 즐기고 있었어.
남자는 하고 싶어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 나라의 동성애가 위험하다는 거야.
두 명이 있는데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다루는지 안다면
누가 그들을 이길 수 있겠어?
바로 그렇게 뒤통수를 치는거야..."

세상의 편견을 정확히 짚어내고 올바른 생각이 무언지를 바로 알려주는 대사였다. 사실이 그렇다. 레즈비언 포르노는 세상의 편견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제일 큰 요

인이다. 대부분의 레즈비언들은 이성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섹스에 대해서 불만족인 상태가 아니다. 똑같이 오르가즘을 느끼고 전희를 느낀다. 이성애자의 관점에서 레즈비언의 섹스에 대해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론짓고 그것을 토대로 상업적인 영상을 찍어내는 것. 그리고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내용의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보는 레즈비언들이 있다. 그들은 그러한 영상을 왜 볼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3. 레즈비언 포르노를 보는 레즈비언

신기하게도 내 주위의 레즈비언들은 레즈비언 포르노를 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필자는 보았다.) 다들 뭐 꼭 봐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못 본 것은 아니지만 다들 한 번 쯤은 보고 싶다라고 생각은 했었다고들 한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법, 그렇다면 L 포르노는 누가 보는 것일까?

포르노는 남자들의 전유물이 아니기에 누구라도 볼 수 있다. 물론 레즈비언도 포르노를 본다. 이성애자들이 이성애 포르노 뿐 만 아니라 동성애 포르노도 보듯이 동성애자들도 이성애 포르노도 보고 동성애 포르노도 본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말도 안 되는 설정에 오히려 기분이 나쁠만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진 포르노를 보는 레즈비언들은 그것에서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사실 말 자체가 조금 이상하기도 한 것이 그냥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보는 포르노에서 무엇을 바라고 또 그것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것이 어쩌면 오버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자.

사람들은 모두 쾌락을 원한다. 그리고 욕구가 있다. 식욕 성욕 등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성욕을 채우고 싶어 한다. 레즈비언도 사람이기에 당연히 성욕을 채우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포르노를 보는 사람도 당연히 있다.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레즈비언 포르노물은 플라토닉보다는 하드한 면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제작되기 때문에 시각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에게 크게 어필한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지는 몰라도 그 포르노를 보면서 '시각적으로 즐겁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그 포르노를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를 말해주자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포르노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남성의 시각을 유지하고 보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것을 찍은 사람의 관점에서 똑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수용자의 시각이 제작자의 시각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르노를 보면서 사회비판적인 관점으로 '어, 이건 좀 아닌데' 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아무리 영상 속에서 변태적인 섹스를 하는 것처럼 나와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 로 생각하게 되면 아무 거부감 없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의 경우를 비추어보면 나 자신에 대한 정체화를 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영상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었다. 하지만 정체화를 하고서는 '남들도 나를 저렇게 생각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제작자의 시각과 내 시각이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볼 수가 없었던 것 같다.

물론 레즈비언 포르노를 보는 레즈비언들이 정체화를 못해서 라던가 생각이 짧아서 아직도 그것을 보면서 즐긴다라고 말 할 생각은 전혀 없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처음 이 글을 쓰기로 정해졌을 때 그리고 글을 쓰는 와중에 결론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역시 내가 어떠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람은 모두 각자의 개성이 있고 각자의 취향이 있는 법이다. 레즈비언 포르노를 보는 레즈비언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왜 보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할 이유를 가진 자도 없다.

자신이 원하면 하면 되는 것이다. 그 행동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할 권리는 없다. 또한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그른 것도 없다. 어쩌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레즈비언 포르노도 나만의 틀에 맞춰진 편견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해석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마 상당히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는 '그것이 그다지 올바르지 않다'.

예전을 생각해보면 나는 아무런 생각없이 그런 영상들을 보고 즐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와서는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암시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세상은 편견 덩어리이다. 나는 어느샌가 그 편견 속에 길들여져서 살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볼 때는 내가 그 편견중의 일부에 속해 있으면서 '편견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나도 상당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참 모순적인 일이다. 이 글을 쓰면서 느낀 것은 역시 편견이라는 것. 나도 남들과 다를 것 없이 편견에 잡혀 있다는 것. 결론이 참 엉뚱하게 난 것 같긴 하지만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다. 어쩌면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자체가 내 편견을 확인사살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여, 편견에서 벗어나자.

덧붙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글 쓰는데 진짜 소질 없는 내가 국어와 작문에서 소논문을 쓰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서 글을 썼다. 내 글의 특징인 '무슨 소리하는지 진짜 모르겠네'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글이었지만 나름대로 뿌듯하다. 세상의 모든 글 못 쓰는 사람들, 파이팅!

[대담] 편견! 이건 아니에요

장소 : 변태소녀하늘을날다 방
시간 : 9월 19일 추석을 마무리할 즈음
모인 사람 : 다랑, 몸, kaze, twiggy, 오스, 해마, 로니
진행 : kaze
정리 : 멋진 '파이'

길고도 긴 정식명칭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2]의 뉴페이스 그녀들과 번날에 짱박힌지 2~3년째인 그녀들과 대담을 나눴다. 2~3년이라는 시간을 강조하는 이유는 편견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데, 그녀들의 정신적 연령과는 상관없이 이 짧은 시간에도 문화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있어 그녀들이 말하는 편견의 시간차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워낙 각자 개성이 뚜렷한 7인이 모였으니 그들의 편견에 관한 경험은 다양하다! (그녀들이 입 밖으로 꺼내는 이 말들이 실제 상황임을 유의하자) 이제 그녀들이 풀어내는 이 대담을 귀기울여보자! 왜? 솔직 담백한 7인의 flyinggurl 들의 대화로 당신의 편견을 무너뜨릴 작정이니!

kaze : 이번 문화제의 주제는 「이반에 대한 편견」[3]인데……. 요… ,(존댓말이 어색한 kaze;;) 그래서 이번 대담도 편견에 관해 얘기를 해볼 거예요.. 편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외모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레즈비언뿐만이 아니라 동성애 전체에 관한 편견, 그리고 '성'에대한 편견 등이 있어요… 특히 기독교의 교리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4]하기도 해요. 이제 편견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어 보아요~~

모두 : 좋아요~

1. 레즈비언에 대한 편견 바로잡기! - 이것은 기본!

몸 : 레즈비언인 우리들 뿐 만아니라 동성애자들을 지칭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라는 말을 쓰잖아~ 동성연애라는 말 디게 웃긴데 이말 자체가 동성애자들을 바라보는 이상한 편견이 아닐까? 솔직히 우리가 언제부터 연애가 목적(?)이었냐? 사랑 = 연애?? 막 학교 앞에 다니는 이성커플보고 "앗! 쟤네들 이성연애 하네" 이래야 되는 거 아냐? ㅋㅋㅋㅋㅋㅋㅋ

---

2) 이하 '번날'이라 칭함
3) 이번 문화제에서는, 레즈비언에 대한 편견을 풀어보려는 의도로 "편견 클리닉 : 이반과 일반"이라는 제목을 가진다. 다시 말해, 동성애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교리에 의한 또는 경험에 의한 무조건적인 배척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나 의견에 불과하다. 균형 잡힌 시각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려면, 또는 당신주위에 살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무지와 편견으로 보지 않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번 문화제를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조:장(助長) [명사][하다형타동사][되다형자동사][흔히의도적으로 어떠한 경향이 더 심하도록] 도와서 북돋움. 예)소비를 조장하다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해마 : 맞아! 남자랑 여자랑 사귈 때 섹스가 항상 목적이 아니듯이 동성 간의 사랑도 이성 간의 사랑이랑 같은 감정이고 동성연애라는 말이 아니라 동성애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지!

몸 : 진짜 기본이 안 되어 있다니깐 기본이!!

kaze : 동성애는 동성에 이끌리는 것이고, 왜 동성애자라고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거나 자살도 되겠지? 또 이유 없이 구타당하고 상처를 받는 건 사람들의 편견이 만들어낸 끔찍한 결과라고 생각해..

일동 : 조금 침묵

다랑 : 워워워~ 자 다들 진정하시고~ 이제 시작이에요~

말 그대로 친구사이에 미움, 슬픔, 아쉬움, 그리움, 좋음,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중 특히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 동성애다. 동성에게 사랑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당신에게 먼~ 일 것 같고 상상이 안 될 수 있지만,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당신 가까이에 있으며 상상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성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는 당신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동성애도 문제될 이유가 없다. 그래도 꺼림칙한 것이 남았다고? 그럼 문화제기간동안 유심히 자보전을 정독하기를 강추한다!!!

2. 외모편견주의! 아니 되오!!

kaze : 여러 가지 많은 편견 중 두 번째로 어떤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동 : 외~모~요~~~~~~~~~~~~~~~

kaze : 외모에 대한 편견은 일반인들이 가지는 편견과 이반들이 이반에 대해 가지는 편견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아닌데 의심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속칭 게이다[5]가 돌지만 아닌 사람들.. 그리고 부치 펨[6]에 대한 편견들.. 자자 이제 이야기 해보아요..

---

5) 게이다 : 정확히 어원을 알 수 없지만 이반일 것 같은 사람을 추측할 때 쓰이는 말로 레이더와 게이란 말의 합성 또는 명사 게이와 동사 -다의 합성어로서 만들어 진 것일까 라고 본인이 짐작할 뿐이다. 이반 사회에서 쓰이는 용어이다. 10대 이반들은 게이다의 동의어로 '멍동'이라는 말을 쓴다. 게이다라는 말은 외모만이 아니라 이반이 이반을 볼 때 감정적으로 동질감을 느낄 때 쓰인다.
용례 : (속으로) 지나가다가 '멍동', "오늘 학관 앞에 지나치다가 게이다 도는 사람 봤어~"
tip) '게이다가 돈다' 라는 말은 점작일 뿐이고 이반 사회에서 조심스럽게 쓰이는 것에 반에 상대방이 레즈비언 이라는 사실을 동의 없이 알리고 다니는 아웃팅과는 거리가 멀다.

6) 이반 사회에서 쓰이는 용어이다. 레즈비언을 전통적인 성관념에 따라 남성스러우면 부치 여성스러우면 펨이라고 부른다. 이는 이분법적인 분류와 이성애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유로 비판받고 있으며, 부치 펨 이분법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는 부치 또는 펨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이들이 대다수이고 부치와 펨을 나누는 것을 문제의식을 덜 느끼는것은 어떤 이성애적 중심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레즈비언 사회에서 자신을 정체화 하고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하

로니 : 외모에 대한거 머 짧은 머리!!

오스 : 컷트머리!

twiggy : 염색해야 돼!

다랑 : 걸음걸이도 쫌!

kaze : 힙합바지!

해마 : 담배도 펴야 돼! 맞어 피어싱도!

(계속 맞아 맞아 연발되고 있으나 정체를 알 수 없다.)

kaze : 근데 왜 고등학교 때까지는 지금 말한 컷트에다 옷을 그렇게 입고 담배를 피우고 피어싱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대학 와서 특히 우리 학교에 많다는걸 알고 다른 사람들(레즈비언들)을 만나보면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오히려 고딩 때 그랬던 사람들은 다~ 남자 사귀고!!

다랑 :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봐도 그렇지 않나?

twiggy : 난 지금 여기에 있는 거 하나도 해당이 안 돼! 머리도 길고 옷도 그렇고 담배도 안 피고 귀만 뚫은 정도?

로니 : 난 심지어 피어싱도 안했잖아~

kaze : 해마는 머리가 짧아도 정말 아닌 것 같아..

몸 : 이게 한가지만으로 안 되고 우리 말했던 것들이 종합되어 있는 사람을 지칭 하는 것 같아..

다랑 : 그래도 그냥 단적으로 내 친구 중에 방금 말한 거 다 해당되는 얘가 있는데 남자랑 4년째 잘 사귀고 있어~ 둘이 아주 죽는 다니깐!

나의 표현으로 보기 때문이고, 부치 펨에 속하지도 않고 자신이 나누는 것이 불편한 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글쓴이의 생각임 밝히는 바이다.
그리고 변남의 대담에서 부치 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도 레즈비언 사회에서 현재까지 통용되는 부치 펨에 대한 편견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나온 단어이다. (이것은 변남의 입장이 아니라 글 쓰는 파이의 자유로운 생각임을 재차 밝힙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kintway@hanmail.net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의 공포는 핏빛이 아니다.

by 휘린

스피드 퀴즈 : 국산 공포영화!
(꼭 제일 공포스러웠던 영화를 꼽으라는 것은 아니다. 그냥 '공포영화'라는 장르로 분류되는 영화 중 하나를 떠올려보시라.)

답은 제각기 다르겠지만, 여기서 김지운 감독의 '장화, 홍련'을 떠올린 사람이 없잖아 있을 것이다. 링 이후로, 아니 그 전부터도 이미 공포영화의 공식으로 여겨지던 머리 풀어헤치고 손 휘휘 저으며 나타나는 여자귀신의 부재에도 불구하고-아주 잠시 등장하긴 했지만- 이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다. 더불어 참으로 오버스러운 꽃무늬 벽지와 각종 소품들을 배경으로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공포감이 짜잔-하고 등장하는 귀신보다는 훨씬 좋은 평을 얻어내기도 했다.

뜬금없는 영화 이야기로 서두를 여는 것은, '장화, 홍련'의 레즈비언 코드를 읽으려는 시도는 아니다. 수정+근영 커플은 귀엽긴 하지만 내 타입은 아니.. 쿨럭;

'공포'에 수반되는 이미지가 꼭 핏빛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머리를 풀어헤친 귀신일 필요는 더더욱 없다. 세상에서 제일 괴기스럽고, 혐오스럽고, 놀랍고, 두려운, 그러한 일들은 늘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마련이니깐. 각각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공포의 이미지는 바퀴벌레일 수도, 치과일 수도, 그리고 엄마-_-일 수도 있다.(마지막이 내 경우, 지금은 아니다!)

나에게도 불현듯 공포감은 엄습해온다. '니깟게 감히...' 라고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속수무책으로 휘둘리고야 마는 공포감도 얼마든지 있다. 슬프게도 그 경우 대부분은, 아니 전부는, 나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

불과 얼마 전일이다. 변날 방에 앉아있는데, 문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라. (작년 문화제 자료집에서 이야기한 바 있는데, 밖에서 말하는 소리는 얇디 얇은 벽을 타고 방으로 전부 전달된다.)
- 어머, 이게 뭐야. 변태소녀하늘을날다? 푸훗- 이거 그거잖아, 그거.
이런 소리라면, 하루이틀 들어온 것이 아니기에 사뿐히 무시해드릴 수 있다.
방 문 밖에서 들려오던 소리는,
- 야, 여기 어떻게 생겼을지 되게 궁금하지 않냐? 들어가보고 싶어, 들어가볼까?
였다. 그야말로 철렁-도 아니고 쿵-하고 큰 소리를 내며 가슴이 내려앉더라. 후다닥 문 뒤로 갔다. 숨기 위해서. 얇은 철문을 사이에 두고 저 편에서는 한 떼의 문맹자들이 (변날방 문 손잡이 바로 위에는 반드시 미리 연락 시 방문해 달라는 글귀가 여직 붙어있다.) 방을 습격해오려고 하는데, 이 쪽에 있는 것은 나와 다른 변태소녀, 이렇게 둘. 수적으로도 수세에 몰린다. 방문 너머 저 한 떼의 문맹자들이 망설임을 끝내고 드디어 문을 여는 찰나, 평소 운동신경 둔하고 느려터진 내가 문을 쾅 하고 밀었다. 아니, 내 손이 밀었다. 절대 그 움직임은 대뇌에서 관장할 법한 것이 아니었다. 한 무리의 철없는, 혹은 뇌 없는 문맹자들은 꺄악- 까르르 저 편으로 튀어갔다.
'아, 끝났어.'[털썩]
멀어지는 뒷모습은 차마 확인해두지 못했지만, 반지의 제왕2에서 물 밀듯이 밀려오던 그 이름이 뭐더냐, 여튼 그 괴물들이 머릿속에서 저 멀리 튀어가는 여자아이들 그림과 오버랩되었다.

나에겐 공포란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아무 일 아닌 것 같아도, 말 그대로 털썩하고 주저앉고 싶게 다리가 풀리는 일이고,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오게끔 하는 일이다.

방 문 앞에서 허허덕거리는 남자들의 목소리 이것은 수십 배쯤 더 두려운 일이다.
덜컥 문을 열고 들어와 인터뷰 부탁을 하며 생글생글 웃는 그 얼굴이 나는 두렵다. 저 멀리 '어떤 방'에서 관심 없는 척 다른 일을 하다가 방 쪽으로 걸어가는 사람 뒷모습을 주시하고 있는 것도 역시 두렵다. 또 무엇이 있을까? 거기, 당신 한번 상상해보자. 잠시만 내가 되어서...

가족, 친구, 학교, 직장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 그 공포. 나열하자면, 실수의 집합 규모는 아니더라도 정수 집합 규모는 되지 않을까. 어쩌면 내가 유독 겁이 많은 레즈비언일런지도 모른다. 내가 오버쟁이이길, 차라리 그러길 바란다.

아웃팅 위협, 아웃팅으로 인한 각종 금전적인 피해, 생각조차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일들, 레즈비언 사이트에 들어오는 남자들, 어느 날 홀연 사라져버리는 이반 친구들, 정체성을 눈치채버린 부모님,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내 오빠, 내 동생... 아, 두렵고 괴롭고, 무섭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두렵고, 가장 경계하고 싶은 것은 내가 나 스스로에게 가져다 주는 공포심이다. 내가 레즈비언인 나를 두려고, 무서워 하는 것. 바로 그것.
내가 처음 내 정체성을 어렴풋이 깨닫던 무렵 나 스스로에게 느끼던 그 공포, 혼자 커피숍에 앉아 창 너머로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이성애자 커플을 볼 때 스스로에게 안겨주던 그 공포이다. 아주아주아주 가끔 내가 그들 말대로 '비정상'이 아닐까라고 또 다시 고민하게끔 하는 그 공포이다. 20살이 훌쩍 넘어서까지 내가 누군가? 고민하게끔 만드는 그 공포이다.



단체 및 커뮤니티 소개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저희 부산 여성성적소수자 인권센터는...

1990년이래 숨어있던 동성애자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러 단체들을 결성하고, 성적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습니다. 그로인해 사회의 가치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근거 없는 편견과 사회 잘못된 관념으로 동성애자들은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진지하게 동성애자들의 삶을 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7년여동안 영남지역에 많은 동성애자 모임이 있었으나 인권운동의 틀과 인식이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부산 경남의 최초로 인권단체를 표방했던 '안전지대'가 5년여동안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활동가의 아웃팅 위협 감수, 재정의 어려움과 무엇보다 초대회장의 반인권적인 행각 그리고 회원들의 성폭력 인식 부족으로 인권단체로서의 활동보다 친목모임의 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진해체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 후, 영남지역의 제대로 된 여성성적소수자 인권단체의 존속을 바라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부산 여성성적소수자 인권센터' 의 건립을 결의하였습니다.

2003년 2월 14일 개소한 저희 센터는 여성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을 기본으로 추구하며, 영남권지역 여성성적소수자를 중심으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긍정하고, 호모포비아를 지닌 일반인들과 성소수자의 부모가 자녀의 성정체성을 제대로 알아가며, 그들의 친구,가족,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합니다.
영남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땅의 소수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활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동성애 자체를 변태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동성애자 사이트를 유해물로 인정하여 사이트를 폐쇄시키고 있으며, 일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반'이라는 단어를 금칙어로 적용시켰으며 유명 언론사들은 동성애자를 에이즈의 주범으로 다시금 문제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운동의 당위성은 확보되어야 하며,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이것은 단지 동성애자를 도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인권을 지키고 확립하는 것입니다.

■ 업무내용 ■

1. 상담

□ 내용 : 성적소수자 정체성, 커밍아웃 및 아웃팅, 동성간 성폭력 등
□ 방법 : 전화상담, 면접상담, 온라인상담
□ 대상 : 성소수자(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친구, 가족 등

○ 전화상담
센터의 상담전화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051)581-1992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방문상담
방문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를 주시고 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 온라인상담
센터 홈페이지의 '온라인 상담실'이나 E-Mail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Mail : womcenter@hanmail.net

2. 교육사업
□ 내용 : 성소수자정체성, 인권
□ 방법 : 강의 홍보 → 강의 요청 → 파견 강의
□ 대상 : 사회단체, 학생회, 소모임 등

3. 문화사업
성적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넘어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는 문화 인프라의 활용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퀴어문화축제, 퀴어영화제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쉽고 친근하게 성적소수자문제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사업을 기획, 시행합니다.

4. 한국동성애자연합 연대사업
2002년 발족된 '한국동성애자연합'과 연대하여 법률개정 및 제정, 성소수자 인권보장의 정책화 등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5. 여성인권연대사업
여성단체들과 연대하여 여성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함께 합니다.

6. 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 사업

■ 후원회원가입 안내 ■
센터의 설립 취지와 활동에 공감하시는 분은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방법
센터 방문 및 회원가입서 작성
○ 자격
센터의 설립취지와 활동에 찬동하는 자
○ 의무
후원회비 자동이체
<후원계좌>농협 948-12-439486 예금주 부경여성센터
부산은행 059-12-088941-5 예금주 부경여성센터
○ 권리
센터의 총회 및 각종 행사의 참석권, 소식지 무료구독, 각종 소모임 활동

레즈비언권리연구소

Lesbian Institute For Lesbians(LIFL)

1. 레즈비언권리연구소 소개

레즈비언권리연구소(LIFL)는 실천연구공동체입니다.

레즈비언권리연구소(LIFL)는 열린연구소입니다.

레즈비언권리연구소(LIFL)는

01 레즈비언의 시각으로 레즈비언을 억압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02 레즈비언의 목소리로 저항하며,
03 레즈비언을 위한 실천적 지식을 생산하고,
04 레즈비언을 위한 급진적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한 연구소입니다.

2. 레즈비언권리연구소 연구사업 계획

01 쟁점토론회 개최

레즈비언 권리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쟁점토론회는 레즈비언이 당면한 현실적인 과제는 물론 레즈비언 권리 운동 안팎의 이슈를 다룹니다.

02 한국레즈비언인권실태 보고서 발간

<레즈비언권리연구소>는 한국 레즈비언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는 연 1회 실시·발표합니다. 해당 년도의 실태조사 결과는 레즈비언 권리 상황을 알리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 1회의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레즈비언 인권 상황의 변화추이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운동단체의 과제 선정, 장기적인 정책 수립의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03 레즈비언 증언사 기록·수집·출판

다양한 세대의 레즈비언들이 겪어 온 삶의 이야기를 모아 출판하고자 합니다. 레즈비언 증언사 수집은 <레즈비언권리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레즈비언권리연구소>는 레즈비언의 묻혀진 역사를 복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04 번역·출판 사업

<레즈비언권리연구소>는 레즈비언 관련 이슈를 다루는 국외 양서를 번역·출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5 「LIFL 총서」 발간

<레즈비언권리연구소>는 정기적인 「LIFL 총서」 발간을 통해 한국 레즈비언 권리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고, 현실 변화를 위한 총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06 사이버 레즈비언 아카이브 구축

숨겨진 레즈비언 역사의 발굴, 그간 진행되어 온 레즈비언 권리 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자료관 건축 사업입니다.

07 기타 사업

이 외에도 언론 비평, 공익 광고, 교육 매뉴얼 북 등 다양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 레즈비언 권리 운동 단체와의 연대사업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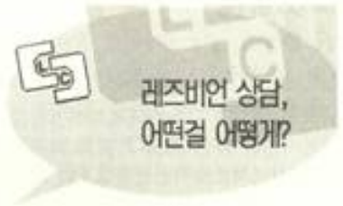
3. 후원계좌

■ 예금주 : 레즈비언권리연구소
외환 : 048-22-03716-5 우리 : 018-712174-13-001 조흥 : 595-01-015270
국민은행 : 498101-01-075780 농협 : 037-01-311396

■ 예금주 : 박수진
조흥 : 333-04-761486

■ 사무전화 : (02) 714-4017 ■ E-mail : lifl2003@empal.com
■ Homepage : http://lesbian.or.kr

레즈비언권리연구소(Lesbian Institute For Lesbians, LIFL)
☎ (02) 714-4017 ✉ lifl2003@empal.com 💻 http://lesbian.or.kr



어떤걸 상담하나요?

레즈비언들의 고민과 갈등, 그리고 레즈비언들이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피해들에 대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이나 커밍아웃을 둘러싼 고민들,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친구 관계의 문제, 동성교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고민들, 통고 문제, 학교나 직장에서 생활하며 나가는 어려움 등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립니다.
혼란 아니라 동성, 이성간 일어나는 성폭력 피해, 가정 폭력 피해, 아웃팅 관련 범죄 피해, 원오윈의 피해 및 각종 사법문제에 대해서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각종 성 지식이나 커뮤니티 안내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상담하나요?

1 게시판 상담

게시판 상담은 상담소 홈페이지(http://lsangdam.org)의 [상담하기] 게시판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받고자 하는 내용을 게시판에 써서 올려주시면 한국레즈비언 상담소 상담원들이 단 하루 이내에 답변 글을 달아드립니다.

2 이메일 상담

이메일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원 이메일(lsangdam@hanmail.net)로 메일을 주시면 됩니다. 단 하루 이내에 상담원이 답 메일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게시판이 부담스러우시거나, 전화 걸기가 여의치 않으신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상담 방법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화 상담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상담 전용 전화번호는 (02)718-3542입니다. 상담전화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 시간대 안에 전화를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용기를 내어 전화번호를 눌러주세요. 상담원들이 친절하게 전화를 받을 것입니다.

4 면접 상담

면접상담은 [상담하기] 게시판, 상담 이메일, 상담전화 등으로 신청을 합니다. 면접상담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한 주로 한국레즈비언 상담소 사무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면접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상담원과 연락을 취해 면접상담 약속을 잡으시면 되고, 면접 당일 다시 연락을 주시면 그 때 사무실 문을 열어 드립니다.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
(http://lsangdam.org)

한/국/레/즈/비/언/상/담/소

TEL 사무(02)703-3542 상담(02)718-3542 FAX (02)703-3543
E-MAIL 사무 lsangdam@lsangdam.org 상담 lsangdam@hanmail.net
HOMEPAGE http://Lsangdam.org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레즈비언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맞서기 위해 노력해 온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를 전신으로 합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한국 사회 레즈비언의 독자적인 권리 운동을 추구합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레즈비언 억압의 토대인 가부장제와 이성애주의에 반대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항합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사업, 레즈비언 대상 각종 범죄의 예방 및 사건 지원, 자긍심 증진과 권리 향상을 위한 교육, 타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레즈비언 권리 운동, 레즈비언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정 운동, 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실천적 인권운동을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1994년 11월 <끼리끼리>의 발족을 시작으로 하여 레즈비언 인권운동은 10여 년간 진행되어 왔고, 최근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형성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레즈비언의 존재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레즈비언을 향한 폭력은 더욱 거세지고,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차별도 심각합니다. 여전히 이 사회에는 레즈비언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무시나 편견, 왜곡이 팽배한 것입니다.

레즈비언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동성애자로 이중의 억압에 처해 있습니다. 정체성 혼란, 커밍아웃과 아우팅의 문제, 독립의 문제, 교제의 문제,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등 레즈비언이 직면하고 있는 괴로움은 너무나 많고 심각합니다. 많은 레즈비언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개개인의 레즈비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털어놓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줄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개개인의 레즈비언의 고민을 모아 레즈비언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공간 역시 꼭 필요합니다. 이에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한국 최초의 독자적인 레즈비언 상담소로서,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레즈비언을 억압해온 가부장제와 이성애주의 및 이에 근간한 제도에 대항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간사가 상근하고 있으며, 전화상담, 게시판상담, 이메일상담, 면접상담, 내방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가부장제와 이성애주의에 반대하는 단체들과 굳건히 연대하며, 개개인 레즈비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레즈비언을 향한 모든 차별과 억압의 종식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 조이토마토 - 이화여대 여성이반 친목 커뮤니티

사이트 개요 :
조이토마토닷컴(http://www.joytomato.com)은 2002년 9월 30일에 오픈한 회원수 50여명의 이화여대 여성이반 친목 커뮤니티입니다. 과란토마토(재학생)와 빨간토마토(졸업생)들의 적절한 배합을 통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토마토 샐러드와 토마토 소스, 토마토 주스 등등을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 확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혜택 :
다양한 이화 이반 인맥을 제공해드립니다.
①공강시간에 이반 친구와 학교 운동장에서 함께 담배 태우고 싶으신 분, ②이반 친구와 함께 교양수업 들어보고 싶으신 분, ③개강파티를 이반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 ④이반 친구, 후배, 선배를 만나보고 싶으신 분, ⑤이반문화행사에 동행할 이반친구가 필요하신 분...조이토마토에서 다양한 이화이반 선후배를 만나보십시오.

영입대상 :
백과사전에는 채소로, 시장에서는 과일로 취급되는 토마토의 희색분자적인 이미지와 이화이반, 둘 사이에서 공통된 코드를 느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우수 종자로서 빠른 성장이 기대됩니다. 귀하의 토마토적 재능을 발휘하고 싶습니까? 조이토마토로 오십시오.

연락처 :
기타 문의사항은 master@joytomato.com 으로 메일 보내주세요.

♀♀♀♀♀♀♀♀♀♀♀♀♀♀♀♀♀♀♀♀♀♀♀♀♀♀♀♀♀♀♀♀♀ 후기

♬ 파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건 좋은 감정이다.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당신을 사랑할 수 도있다.이런 당신이 이번 문화제를 통해 나를 보는 편견이 조금이나마 없어졌음 한다.

분명 레즈비언은 이땅에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당신과 똑같다 다만 좋아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 이차이가 차별이 되질 않길 다시 바라면서 문화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음 한다.

변날 여러분 수고 하셨어요 ㅠ.ㅠ '

♬ 해마
준비하면서 쫌 즐거웠다.
변날 식구들한테 박수 다섯번 보냅니다. 짝짝 짜자작v

포스터 전시물 기타등등을 고의로 훼손한자, 줄님(개인적 종교의 우두머리임)의 가혹이 있기를..

♬ Lego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문화제.., - 먼곳에서도 응원할게요_
인생의 최고점에서 꼭 외칠거예요. - 나는 '레즈비언'이라고.
내게 '안정감'이라는 걸 준 변날 언니들, 친구들! 고마워요!! - 변태소녀여 하늘을 날자_!
내 글에 도움을 준 많은 친구들, 고마워! - 서휘, L양, A양, S양, H양, S양 그리고 D고등학교_
내가 활동 할 수 있게 자극한 당신 - K양 고마워.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 - 당신이 아니였으면 나도 편견속에 갇혔을지도._ 고마워요, L
여기까지 읽은 당신은 더이상 레즈비언에대한 편견이 없길 바라면서.-

♬ 오스
후기를 너무 쓰고 싶었는데 막상 쓰려고 생각하니 할 말이 없다.
일단 우리 변날 식구들, 너무 고맙고 다들 너무 좋아.
용병이지만 (ㅋㅋㅋ) 열심히 했지? 그래도 미친듯이 열심히 해주지 못해서 미안.
그리고 내 레즈비언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일반 친구들,
K양, H양, S양, A양, M언니, 그리고 글 고쳐준 또다른 M언니, 그리고 엄마
너무 다들 고맙고 사랑해.
너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즐거워 B.
마지막으로 문화제 성공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 뻑날 화이팅! 아자! ㅋㅋㅋ

♬ twiggy
인생은 랜덤이오, 언젠가 당신이 레즈비언이 될 지도 모르는 일
과제 제쳐놓고 준비하는 시간들 매우 재미있었다

빠삐코!

♬KAZE
'지금만나러갑니다'행사부터 문화제까지 정말 바쁘게 달렸다

가장 오고 싶어했던 학교에서 하고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밀린 과제와 지친 몸이 부담스럽지만 뭐- 언제 다시 이렇게 일할 수 있으랴 ㅋ
함께 고생한 변날 사람들, 그리고 못난 애인한테 걸려 일을 한아름 맡아버린 맛탕씨

모두 고마워요 !!

♬ 몸
작년엔 보기만 했었던 문화제를 올해엔 직접 준비해봤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좀 귀찮고;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보람찬 일이었어요.
평소에 할 수 없었던 미술작업도 해보고 변날 사람들하고도 많이 친해지고~
많은 노력을 들인 이번 문화제 일반들도 같이 즐겼으면 좋겠네요^^

♬ 다랑
참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던것 같습니다.
함께 문화제를 함께 기획하고 준비한
친절;한 우리 활동가들 ,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속에서
많은것을 배우고 무엇보다도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갑니다.
ㅋㅋㅋㅋ

다음 문화제도 기대합시다-

♬ 칼
나름대로 객원이랍시고 열심히 하려했는데
막상 일도 별로안하고; 많이 도와준 것이 없는것 같아 미안해요^-^
참 좋은 일들- 그리고 재미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단체인 것 같아 좋아요.
다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즐거웠던 시간 많이 만들었네요.

더욱 발전하고 뻗어나가는 변날됩시다. 얍-ㅁ-!

♬ 휘린
자기 꼬리를 문 뱀, 아홉 몫이 있다는 고양이
이런 것들이 나와 그리고 우리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게냐!)

지난 문화제 후기에 잔뜩 고맙습니다. 고마워만 써서 이번엔 뽀대나게 쓰고 싶어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휘린표 헛소리를 첨부한다.

그래도 고마운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묶어서 한방에 큰 고마움을 날려드리고 싶다. 아무리 쪼개어도 커다란 그런 고마움.
이 사람들이 변날이에요! 하고 보여주지 못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대 최고 매력쟁이 변날사람들에게는 고마움 대신 커다란 하트 증정!

마지막으로, 나의 T씨.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세 번째 문화제
<편견 클리닉, 이반과 일반> 자료집

발행일 2005년 9월 26일
편집디자인 휘린
표지디자인 KAZE

펴낸곳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TEL 02_3277_4712
E-MAIL flyinggurl@hanmail.net